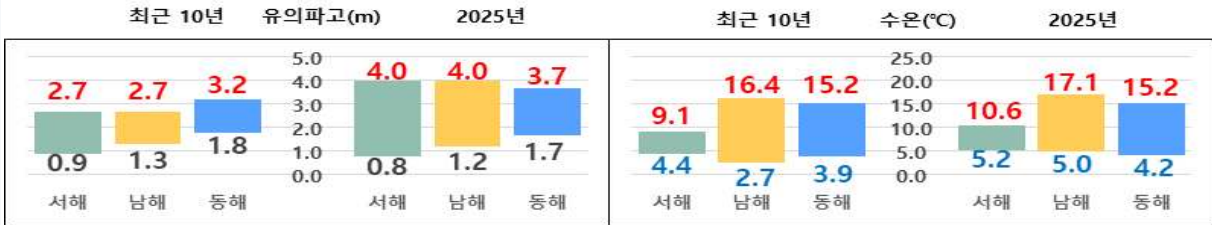


2025년 2월 해양 기상·기후정보

발표일: 2025년 2월 3일

해양 기상·기후

○ 1월 해양 기상 분석(최근 10년('15~'24년) 및 2025년)



○ 과거 2월 해양 기상 특성(최근 10년('15~'24년))



○ '25년 2월 유의파고 및 수온 예측정보



조석

○ 조석정보(고극조위, '25년 2월)

- 인천: 1, 28일(886cm) / 완도: 28일(386cm) / 포항: 1일(20cm)

안전

○ 해상조난사고 현황(최근 5년간('20~'24년))

- 전체 19,712척의 선박사고와 349명의 인명피해 중 2월에 1,045척(6.0%), 42명(12.0%) 발생

○ 해양사고 현황(최근 5년간('19~'23년))

- 2월 평균 159건 발생, 2월은 낮은 수온 등으로 전복·침몰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기로, 운항 중 경계 철저 및 출항 전 화물 고박상태 확인 등 점검 필요

어업

○ 2월 어황 전망

- 고등어, 망치고등어는 평년 수준 또는 평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갱이, 삼치는 평년 수준으로 전망되며 살오징어, 멸치는 평년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갈치와 참조기는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협조: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 기상 · 기후정보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2월 유의파고(평균, 최고)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2월 순별 유의파고(평균, 최고) >

해역	면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외연도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덕적도
서해남부	칠발도, 맹골수도	진도, 군산, 영광, 신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남해동부	거제도	두미도, 장안, 해금강, 오륙도, 다대포,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동해중부	동해, 독도,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맹방
동해남부	포항	후포, 간절곶
제주도	마라도	제주항, 중문, 추자도(파고부이), 우도, 가파도, 협재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최근 10년간('15~'24년) 2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앞바다	먼바다
서 해	0.7m (전월과 비슷)	1.1m (전월보다 0.1m 낮음)
남 해	0.5m (전월보다 0.1m 높음)	1.2m (전월과 비슷)
동 해	1.0m (전월과 비슷)	1.5m (전월보다 0.2m 낮음)
제주도	0.9m (전월과 비슷)	1.7m (전월과 비슷)

<순별 평균 유의파고>

(상순) 동해중부앞바다, 서해먼바다, 남해먼바다, 동해먼바다, 제주도먼바다에서 약간 높았고, 그 밖의 해상은 낮았음

(중순) 동해중부앞바다, 서해먼바다, 남해먼바다, 동해먼바다, 제주도먼바다에서 약간 높았고, 그 밖의 해상은 낮았음

(하순) 서해중부먼바다, 남해먼바다, 동해먼바다, 제주도먼바다에서 약간 높았고, 그 밖의 해상은 낮았음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7	0.8	0.5	1.1	1.2	0.9
남 해	0.4	0.5	0.5	1.1	1.3	1.2
동 해	1.0	1.0	0.9	1.5	1.6	1.4
제주도	0.9	0.9	0.8	1.7	1.7	1.5

※ 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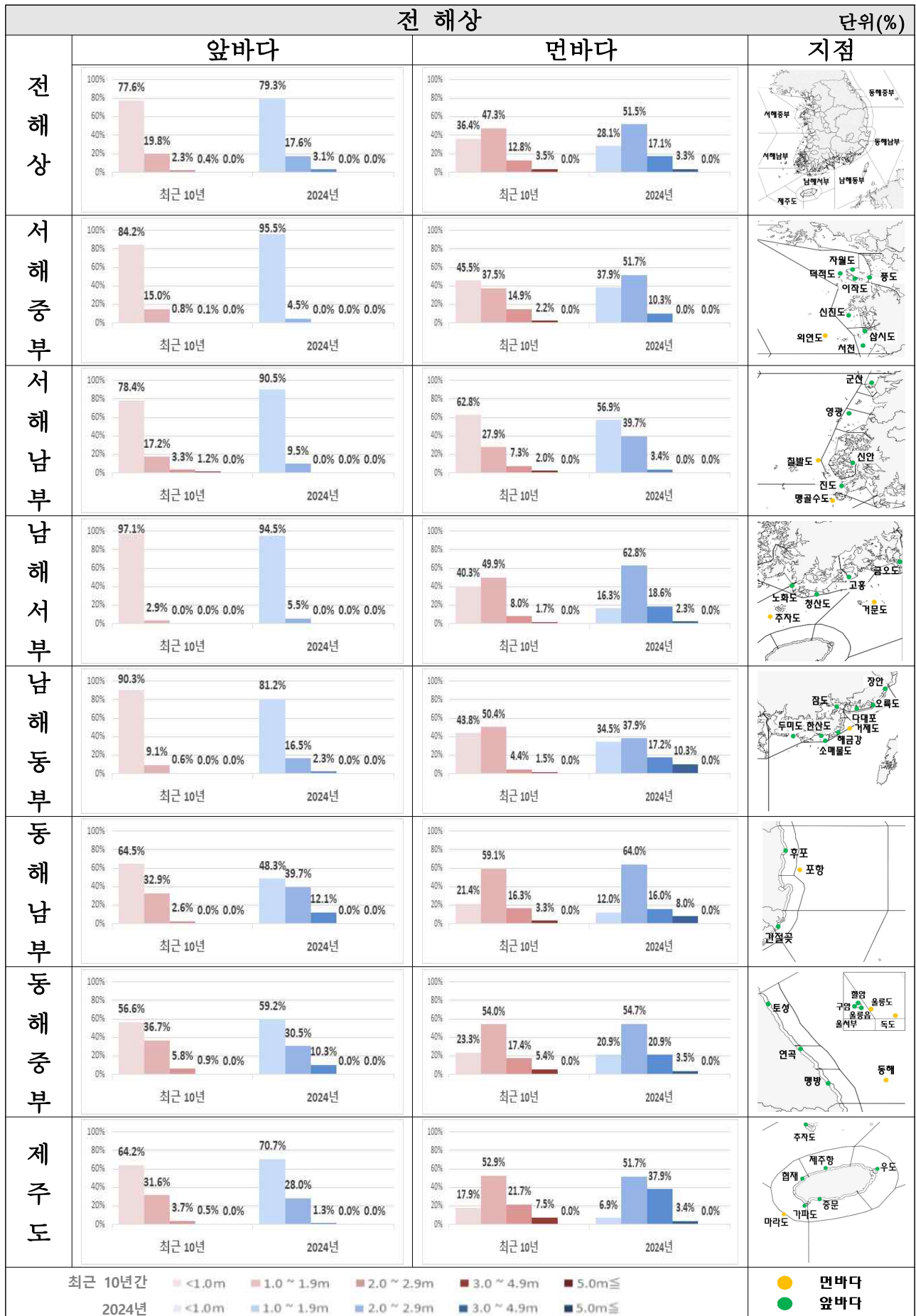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15~'24년) 2월 해역별 최고 유의파고

- 서 해: 앞바다 3.0m / 먼바다 4.2m
- 남 해: 앞바다 4.2m / 먼바다 4.4m
- 동 해: 앞바다 1.9m / 먼바다 4.0m
- 제주도: 앞바다 3.1m / 먼바다 3.7m

○ 관측 이래 2월 지점별 유의파고(일 평균, 일 최고) 극값 순위(단위:m)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 해	칠발도	'20.2.17.	4.4 (5.3)	영광	'20.2.17.	4.2 (5.5)	외연도	'16.2.14.	4.2 (4.8)
남 해	추자도	'21.2.27.	4.0 (5.4)	추자도	'20.2.17.	3.8 (4.7)	추자도	'16.2.14.	3.7 (4.4)
동 해	울릉도	'22.2.17.	4.6 (5.3)	울릉도	'13.2.8.	4.6 (5.1)	울릉도	'20.2.17.	4.4 (5.1)
제주도	마라도	'20.2.17.	4.4 (5.8)	마라도	'21.2.17.	3.9 (5.4)	마라도	'20.2.16.	3.9 (4.9)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2월 유의파고 분포



최근 10년간 <1.0m 1.0 ~ 1.9m 2.0 ~ 2.9m 3.0 ~ 4.9m 5.0m ≤
 2024년 <1.0m 1.0 ~ 1.9m 2.0 ~ 2.9m 3.0 ~ 4.9m 5.0m ≤

● 먼바다
 ● 앞바다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2월 전 해상 유의파고 분포

- 최근 10년 (앞바다) 1m미만 77.6%, 2m이상 2.7%
 (먼바다) 1m미만 36.4%, 2m이상 16.3%
- 지난해 (앞바다) 1m미만 79.3%, 2m이상 3.1%
 (먼바다) 1m미만 28.1%, 2m이상 20.4%

○ 최근 10년간('15~'24년) 2월 해역별 유의파고 분포

- 서해: (앞바다) 1m미만 82.1%, 2m이상 2.1% (먼바다) 1m미만 56.6%, 2m이상 12.1%
- 남해: (앞바다) 1m미만 92.6%, 2m이상 0.4% (먼바다) 1m미만 41.5%, 2m이상 8.4%
- 동해: (앞바다) 1m미만 58.6%, 2m이상 5.7% (먼바다) 1m미만 22.8%, 2m이상 22.0%
- 제주도: (앞바다) 1m미만 64.2%, 2m이상 4.2% (먼바다) 1m미만 17.9%, 2m이상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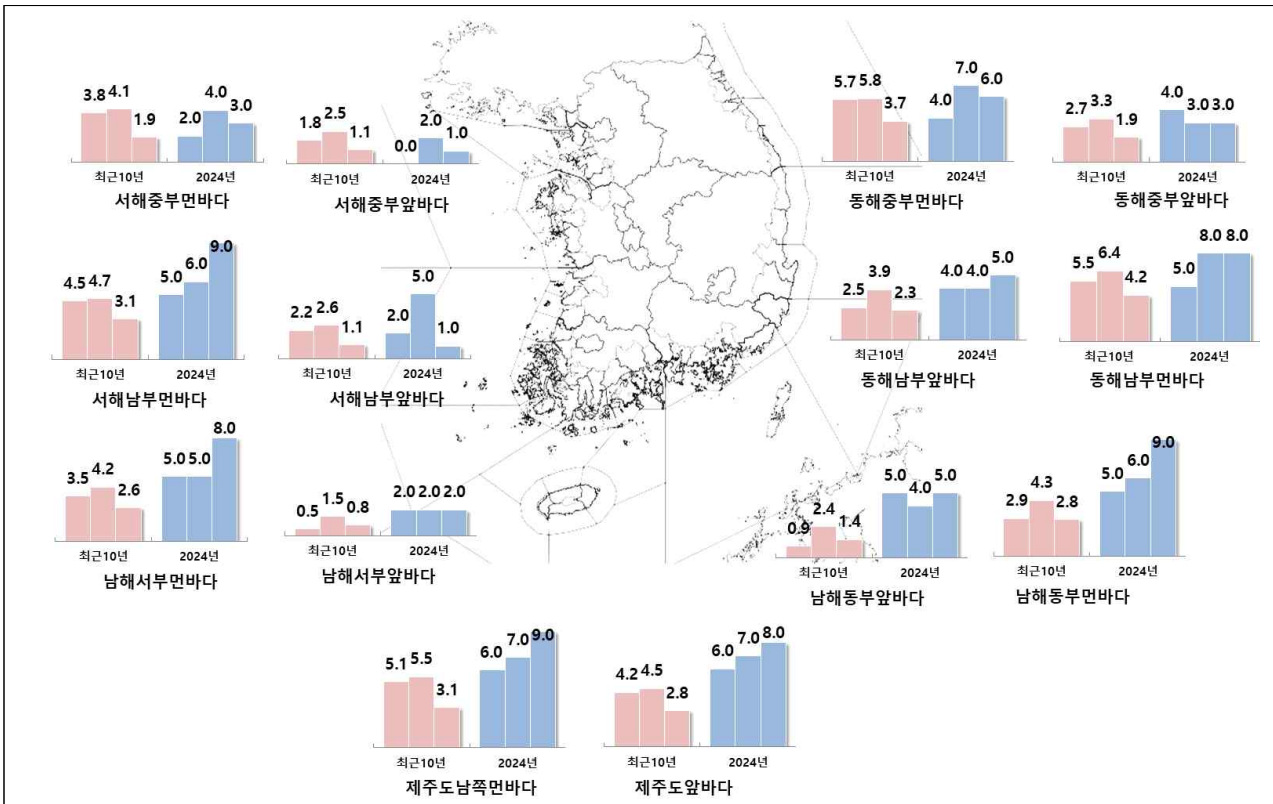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2월 유의파고 분포 최다 해역

- 최근 10년: (1m미만) 남해서부앞바다(97.1%) / (2.0m이상) 제주도먼바다(29.2%)
- 지난해: (1m미만) 서해중부앞바다(95.5%) / (2.0m이상) 제주도먼바다(41.4%)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외연도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덕적도
서해남부	칠발도, 맹골수도	진도, 군산, 영광, 신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남해동부	거제도	두미도, 장안, 해금강, 오륙도, 다대포,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동해중부	동해, 독도,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맹방
동해남부	포항	후포, 간절곶
제주도	마라도	제주항, 중문, 추자도(파고부이), 우도, 가파도, 협재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2월 풍랑특보일 수



<최근 10년간('15~'24년) 및 '24년 2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 2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

- 최근 10년: 9.6일, 전월(10.5일)보다 1.0일 적음
- 지난해: 14.4일, 전월(12.9일)보다 1.5일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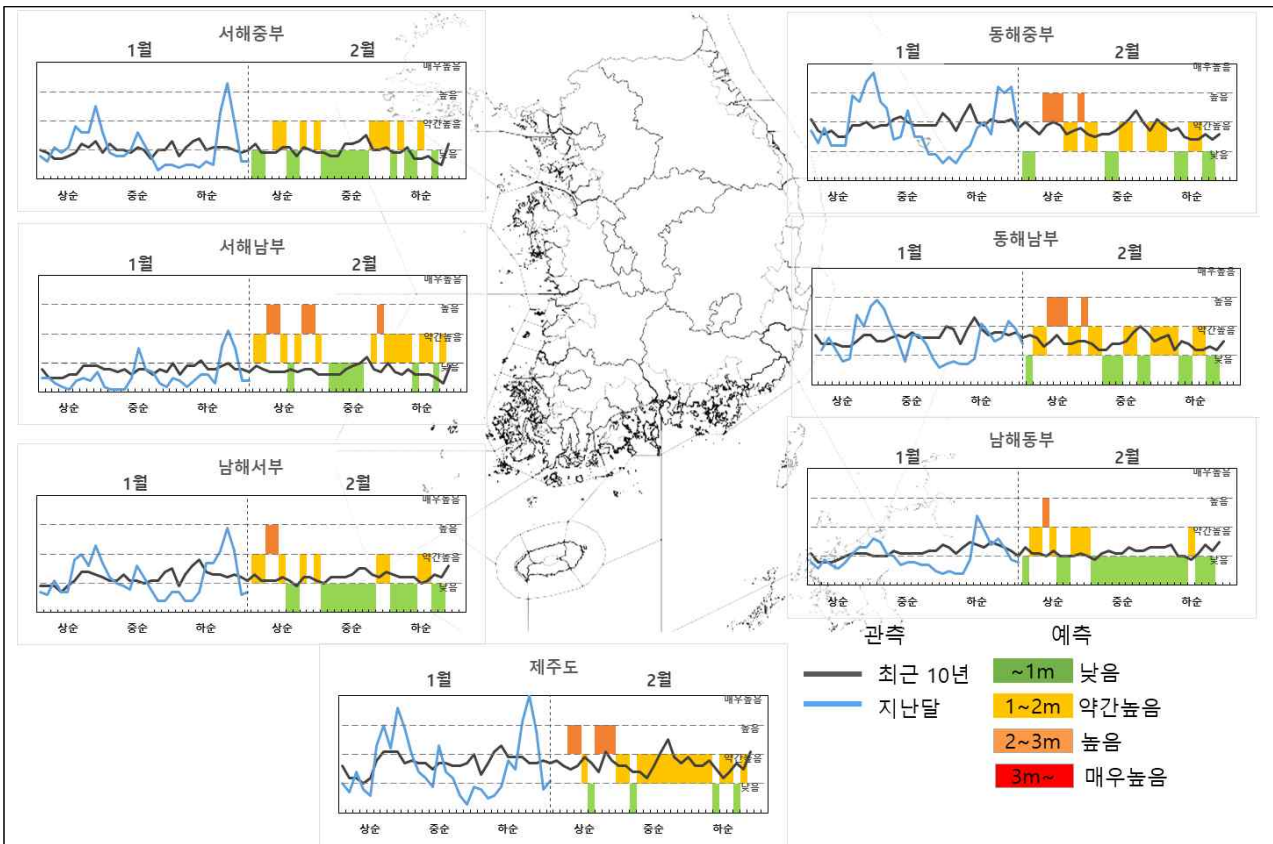
○ 2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10년: 상순 3.3일 / 중순 4.0일 / 하순 2.3일
- 지난해: 상순 3.9일 / 중순 5.0일 / 하순 5.5일

○ 2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 최근 10년: 동해남부먼바다(16.1일) / 남해서부앞바다(2.8일)
- 지난해: 제주도남쪽먼바다(22.0일) / 서해중부앞바다(3.0일)

■ 유의파고 관측 및 예측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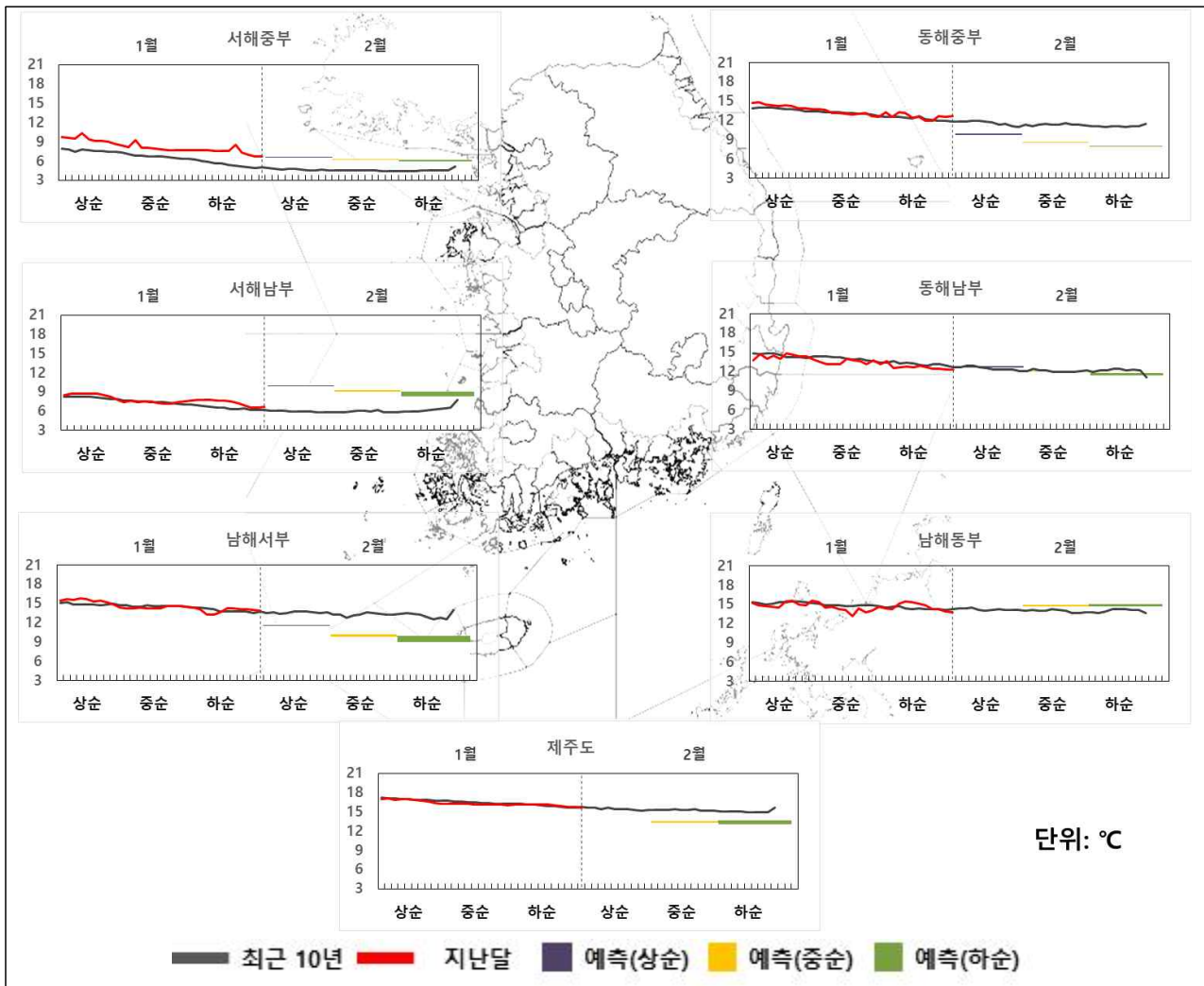
< 유의파고 최근 10년('15~'24년) 및 '25년 1월(1.1.~1.31.) 관측과 2월 예측 >

- ✓ 유의파고는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에서 관측한 일 평균 유의파고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10년(—)은 '15~'24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5년 1월(1일~31일)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파고 예측은 수치모델에서 산출된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범위로 표출함
※ 파고 구간값: 낮음(1m 미만), 약간높음(1~2m), 높음(2~3m), 매우높음(3m 이상)
- ✓ 파고 예측정보는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역	해양기상부이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제주도	마라도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해수면 온도 관측 및 예측 시계열



< 해수면 온도 최근 10년('15~'24년) 및 '25년 1월(1.1~1.31.) 관측과 2월 예측 >

- ✓ 해수면 온도는 해양기상부에서 관측한 정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10년(—)은 최근 '15~'24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5년 1월(1일~31일)의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해수면 온도 예측은 전지구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역	해양기상부이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제주도	마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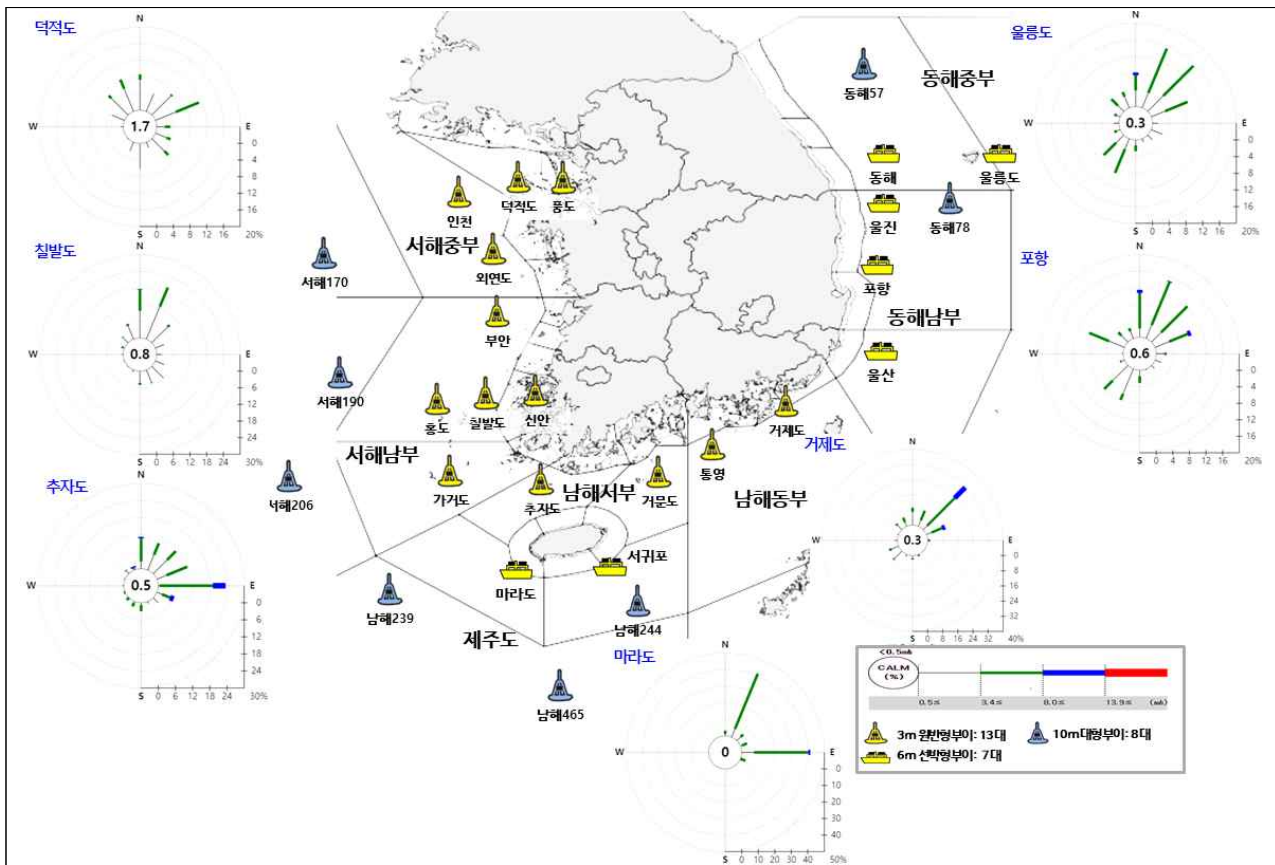
○ 지난달 ('25년 1월) 해역별 해수면 온도 특성

해역	1월 해수면 온도(°C) (최근 10년 대비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7.4~10.6 (1.7)	6.4~9.3 (1.3)	5.4~9.0 (2.0)
서해남부	7.4~8.7 (0.3)	7.0~7.7 (0.1)	6.3~7.9 (0.8)
동해중부	13.3~15.2 (0.5)	11.9~13.7 (0.0)	11.0~13.3 (0.4)
동해남부	13.8~14.9 (-0.2)	13.1~14.0 (-0.5)	12.3~13.6 (-0.5)
남해서부	13.3~16.1 (0.4)	13.1~15.4 (-0.2)	12.1~15.2 (0.0)
남해동부	14.5~15.6 (-0.3)	13.2~15.4 (-0.5)	13.8~15.5 (0.3)
제주도남쪽	16.3~17.1 (-0.1)	16.0~16.3 (-0.3)	15.7~16.1 (0.0)

○ 최근 10년간('15~'24년) 2월 해수면 온도 평균 및 '25년 2월 해역별 해수면 온도 예측

해역(관측지점)		(과거) 최근 10년간 2월 해수면 온도 평균	(예측) '25년 2월 해수면 온도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1.1~8.3	6~7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2.6~9.0	8~10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5.0~14.7	8~11
동해남부	포항	9.1~15.1	11~13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10.1~16.6	9~13
남해동부	거제도	12.2~16.1	15~16
제주도	마라도	13.5~17.1	13~14

■ 지난해('24년)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특성



< '24년 2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 지난해('24년) 2월 각 해역의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3.3	3.4~7.9	8.0~13.8	13.9≤	
서해중부	NNW	0.6	14.9	44.9	18.5	1.1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170, 풍도
서해남부	N	0.4	10.3	43.1	30.4	1.6	칠발도, 신안, 부안, 서해206, 가거도, 홍도, 서해190
남해서부	E	0.3	10.0	31.7	51.4	6.6	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	NE	0.4	11.9	35.3	43.7	8.9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NNE	0.3	13.8	42.3	43.0	0.8	울릉도, 동해
동해남부	N	0.2	11.0	40.1	46.1	2.6	포항, 울산, 울진, 동해78
제주도	E	0.1	4.8	26.2	65.1	3.9	마라도, 서귀포, 남해239, 남해465
전 해상		0.3	10.9	37.6	42.6	3.6	

- 주풍계: 서해상, 동해상은 북풍계열, 남해서부와 제주도는 동풍계열, 남해동부는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
- 전 해상 풍속: 3.4m/s 미만 12.3% / 3.4 ~ 7.9m/s 41.6% / 8.0m/s 이상 43.6%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3.4m/s 미만 - 서해중부(15.5%) / 8.0m/s 이상 - 제주도(69.0%)

☞ 지난해('24년) 2월 해양기상부이 지점별 해상풍은 부록 1. 참고

해양조석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2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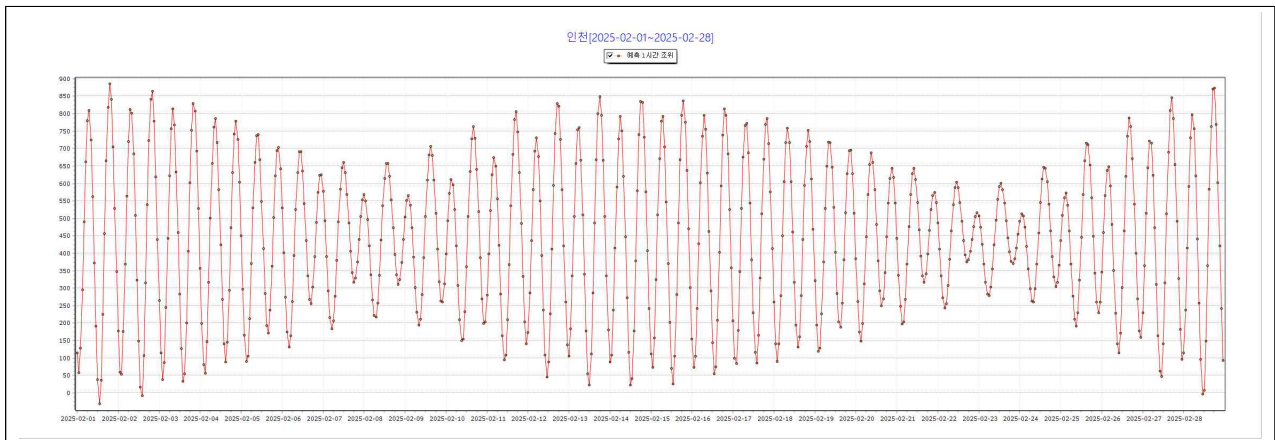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2월 1, 28일에 88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2월 28일에 386cm, 동해안의 포항은 2월 1일에 20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2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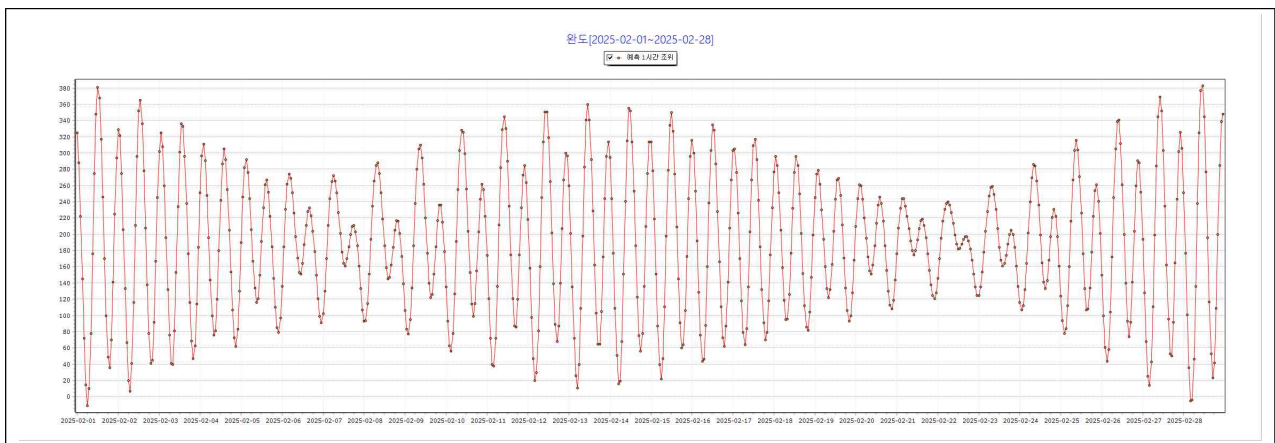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삭, 2.1.)		대조기(망, 2.12~15.)		대조기(삭, 2.28.)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서해안	인천	2.1 19:07	886	2.13 17:58	849	2.28 17:31	886
	안흥	2.1 18:04	667	2.13 16:58	632	2.28 16:29	667
	군산	2.1 17:22	684	2.14 16:44	652	2.28 15:47	681
	목포	2.1 16:31	455	2.13 15:18	438	2.28 14:49	454
남해안	제주	2.1 12:46	271	2.13 11:35	254	2.28 11:12	272
	완도	2.1 12:12	382	2.13 10:59	360	2.28 10:37	386
	마산	2.1 11:03	187	2.13 09:48	185	2.28 09:32	192
	부산	2.1 10:27	121	2.14 09:41	115	2.28 08:56	119
동해안	포항	2.1 04:39	20	2.12 02:18 2.13 03:07 2.14 03:52	15	2.28 02:57	16
	속초	2.1 04:16	28	2.12 02:16 2.13 02:59	27	2.28 02:38	28
	울릉도	2.1 03:43	14	2.12 01:39 2.13 02:24	14	2.28 02:05	11

☞ 2025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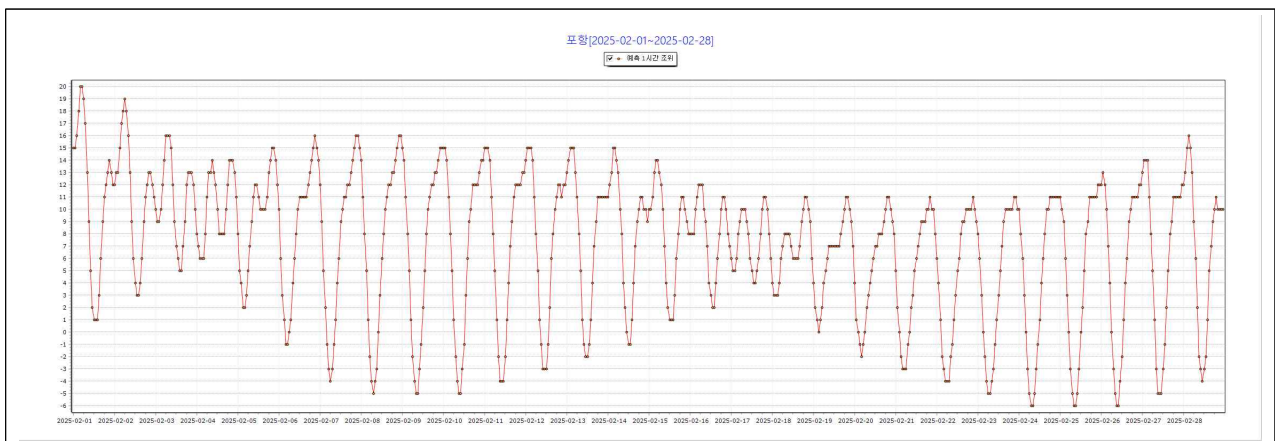
○ 2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5년 2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5년 2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5년 2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양안전정보

해상조난사고 현황

제공: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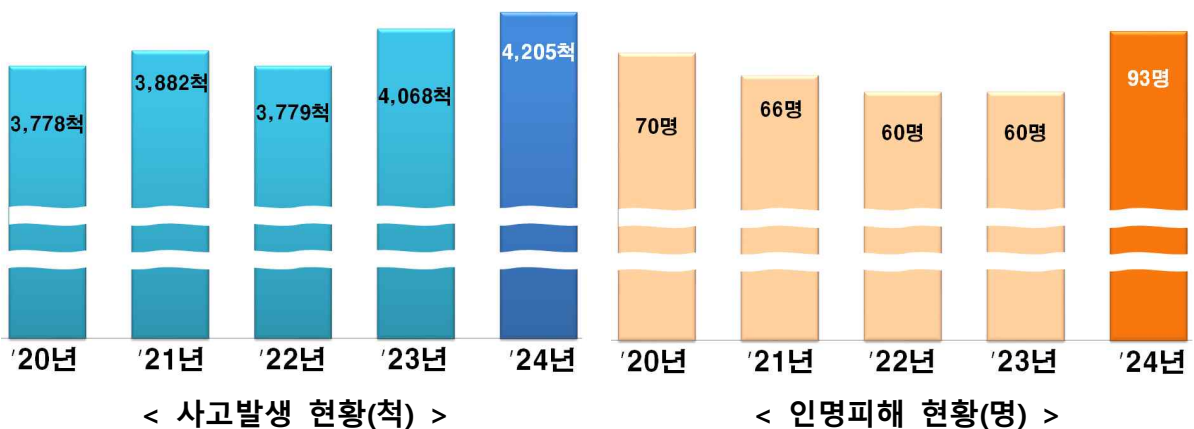
○ 해상조난사고 현황(2월)

- (총괄) 최근 5년간 19,712척의 선박사고와 3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 2월에는 1,045척(5%), 42명(12%)이 발생하였음
- (선종별) 어선(낚시) 60%(어선 565·낚시 57척) > 레저선박 13%(139척) > 화물선(유조선 포함) 12% > (126척)예부선 7%(76척) 등 順 발생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 76%(798척)*를 제외, 6대사고(247척) 중 침수 37%(91척) > 충돌 34%(83척) > 좌초 26%(63척) > 화재 21%(51척) 등 順
 - *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 손상, 운항저해, 부유물감김, 방향상실, 작업 중 인명사상 등
- (원인별)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안전부주의 29%(405척) > 정비불량 27%(375척) > 관리소홀 9%(120척) > 기상악화 2%(35척) 등 順 발생

○ 해상조난사고 통계('20년 ~ '24년)

- 최근 5년간 19,712척(연평균 3942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인원 110,878명 중 349명(사망 248명, 실종 10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구분	발생		구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망	실종
계	19,712	110,878	19,329	110,529	349	248	101
2024년	4,205	26,499	4,141	26,406	93	62	31
2023년	4,068	21,666	3,990	21,606	60	47	13
2022년	3,779	21,032	3,709	20,972	60	46	14
2021년	3,882	20,174	3,779	20,108	66	43	23
2020년	3,778	21,507	3,710	21,437	70	50	20
평균	3942	22,175	3,865	22,105	69	49	20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2019~2023) 2월 중 해양사고 현황

○ [현황] 최근 5년간 2월의 해양사고는 평균 159건 발생(월평균 24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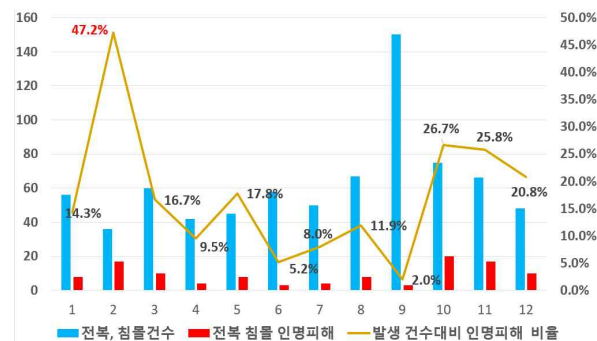
- (사고유형) 주요사고*는 연평균 충돌 13.6건(8.6%), 안전사고 12.4건(7.8%), 화재·폭발 9건(5.8%), 전복 4건(2.5%), 침몰 3건(2.0%) 順으로 발생
* 주요 해양사고는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선박 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및 안전사고를 의미
** 단순 해양사고는 기관손상 50건(26.0%), 부유물 감김 27건(14.2%), 침수 11건(5.7%), 좌초 8건(4.4%) 등 順

- (선박종류) 어선 112척(63.2%), 수상레저기구 22척(12.3%), 화물선 11척(6.3%), 예인선 8척(4.7%), 유조선 6척(3.2%), 여객선 4척(2.3%)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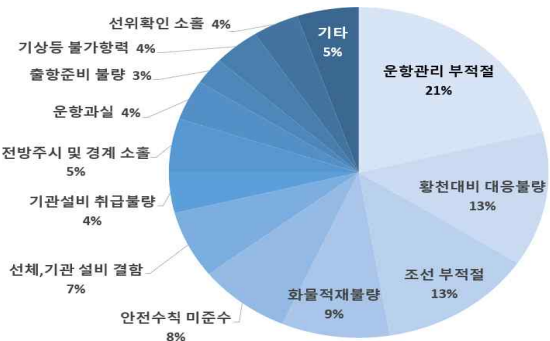
○ 2월은 연중 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되나, 낮은 수온 등으로 전복·침몰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

- (사고현황) 최근 5년간 2월은 전복·침몰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사망, 실종) 발생 비율(17명/36건, 47.2%)이 연중 최고(월평균 14.9% 대비 1.87배 ↑)
- (주요원인) 운항관리 부적절(21.1%), 황천대비·대응불량(13.2%), 조선 부적절(13.2%), 여객·화물의 적재불량(9.2%), 안전수칙 미준수(7.9%) 등이 원인
- (예방대책) 운항 중 경계 철저, 출항 전 화물 고박상태 확인, 어획물 양 망작업시 안전절차 준수, 주요 개구 폐쇄, 구명조끼 착용 등 철저 시행

(19~23년)침몰·전복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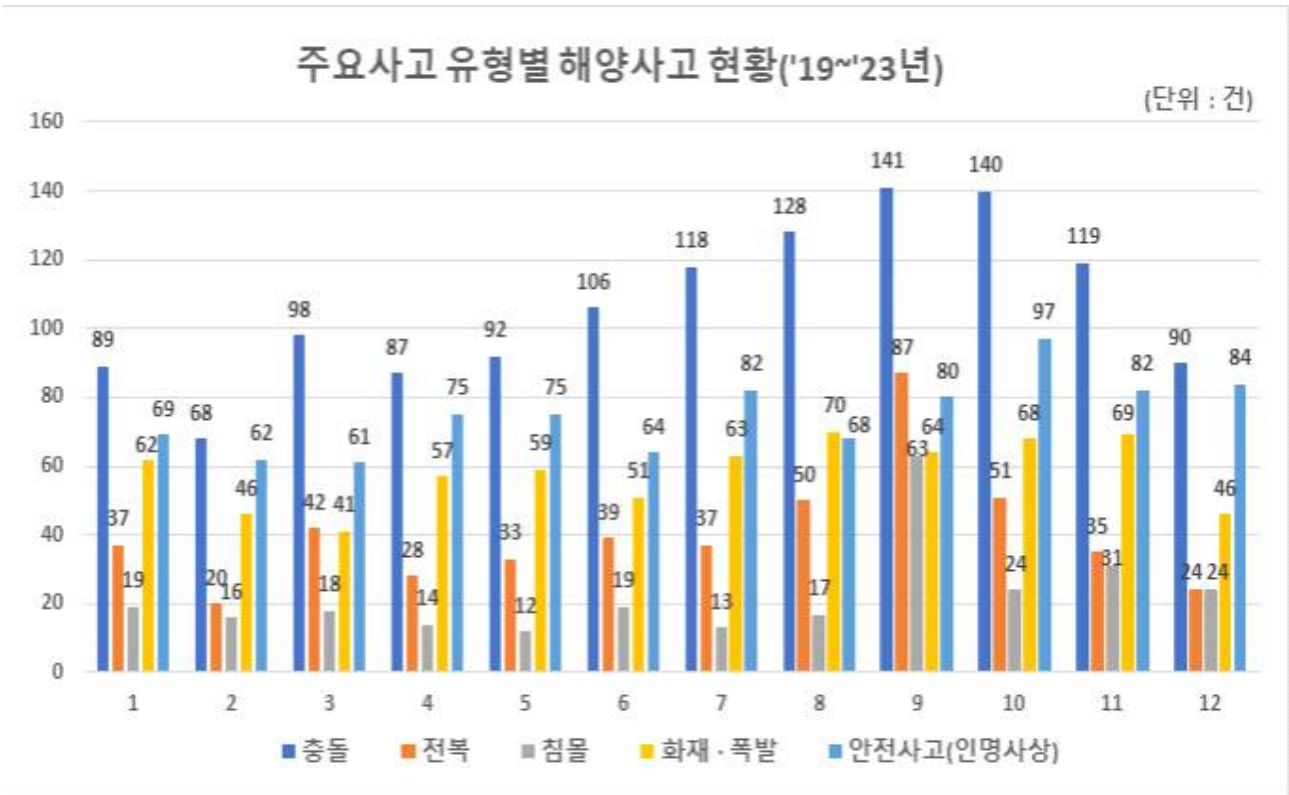


(19~23년)침몰·전복사고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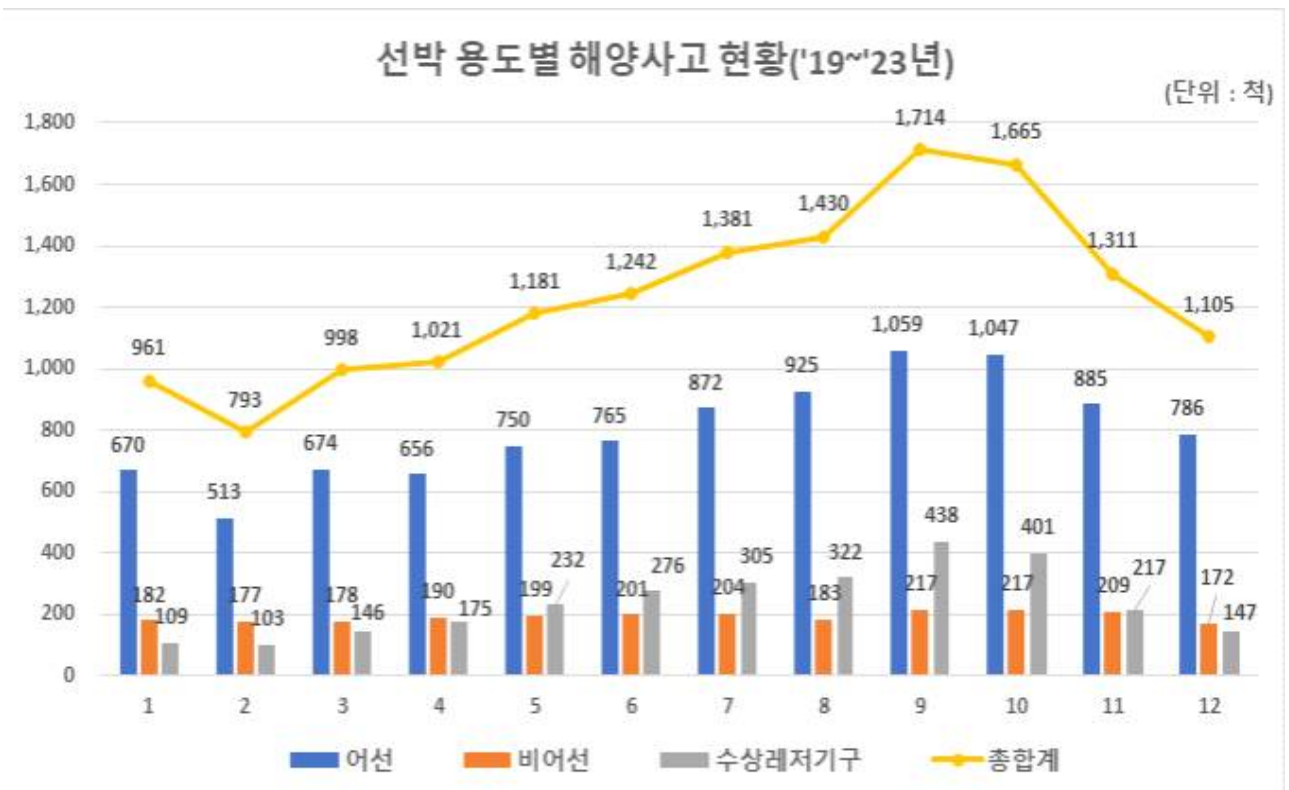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19~2023)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 선박종류별 해양사고 현황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과학원

□ 2월 어황정보

○ 지난달(1월)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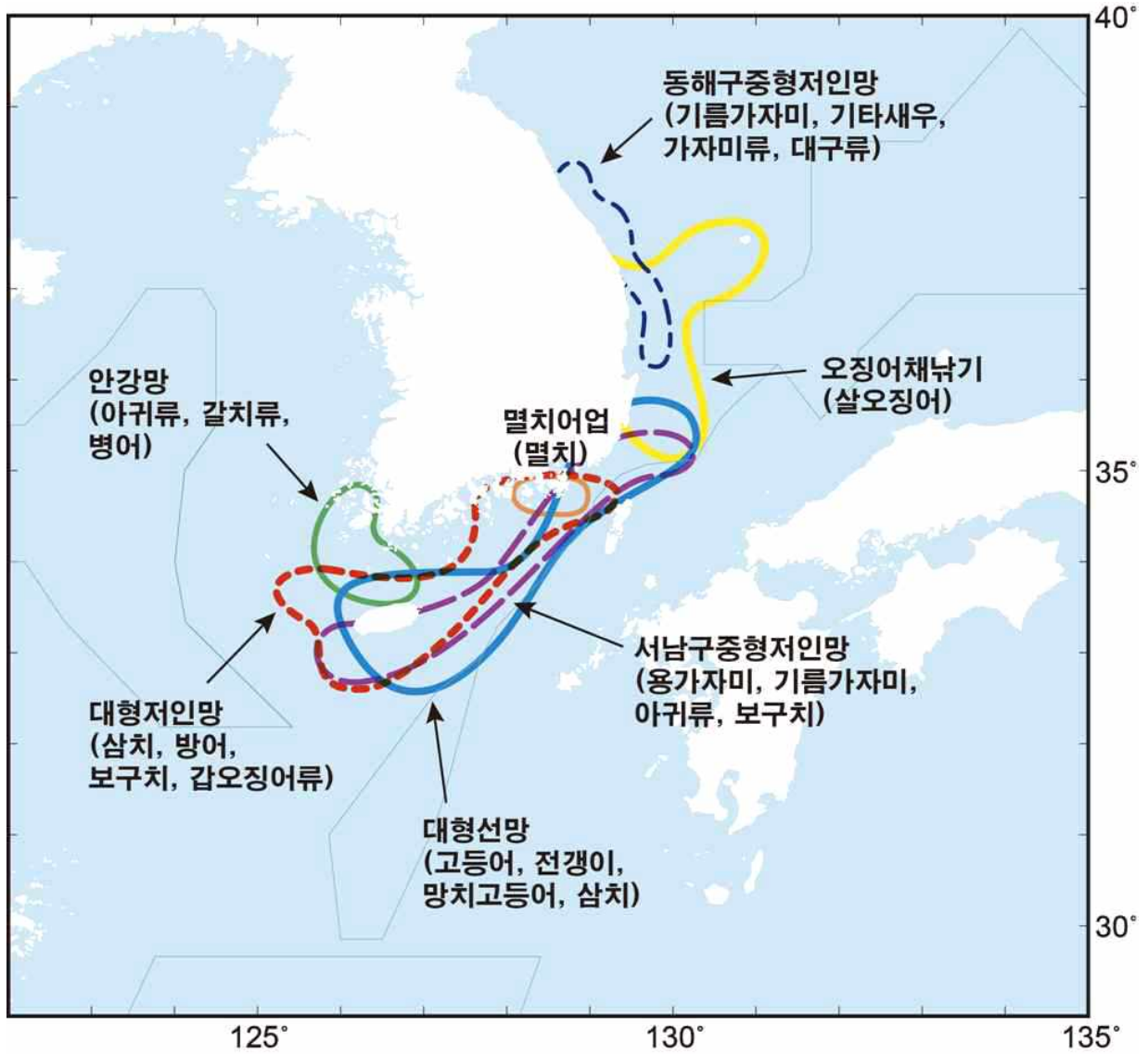
- 1월(기간: ' 24.12.22.~' 25.1.18.)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갈치, 삼치, 망치고등어는 평년대비 증가, 살오징어, 전갱이, 참조기는 평년대비 감소하였다.

○ 2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망치고등어, 방어,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과 동해 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다. 전체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 오징어채낚기어업: 살오징어의 계절적인 남하회유가 대부분 종료되면서 동해 남부해역과 남해 동부해역에서 일부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원밀도 감소 경향이 뚜렷하여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멸치권현망어업: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을 이어가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 수준 또는 평년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근해안강망어업: 제주도 북서부 근해에 걸쳐 갈치, 참고지, 황아귀, 병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고, 전체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 저인망어업
 - 대형쌍끌이저인망어업: 삼치, 고등어, 갈치, 방어 등을 대상으로 서해 남부와 제주도 주변해역까지 중심어장이 형성되겠다.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남부~남해 중부 근해에 걸쳐 보구치, 갑오징어, 달고기, 참돔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다.
 -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 대구, 용가자미, 눈불대, 황아귀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부, 남해 및 동해 남부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경북 연근해를 중심어장으로 기름가자미, 청어, 도루묵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다.
 - 저인망어업의 전체 어황은 평년대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 주요 어종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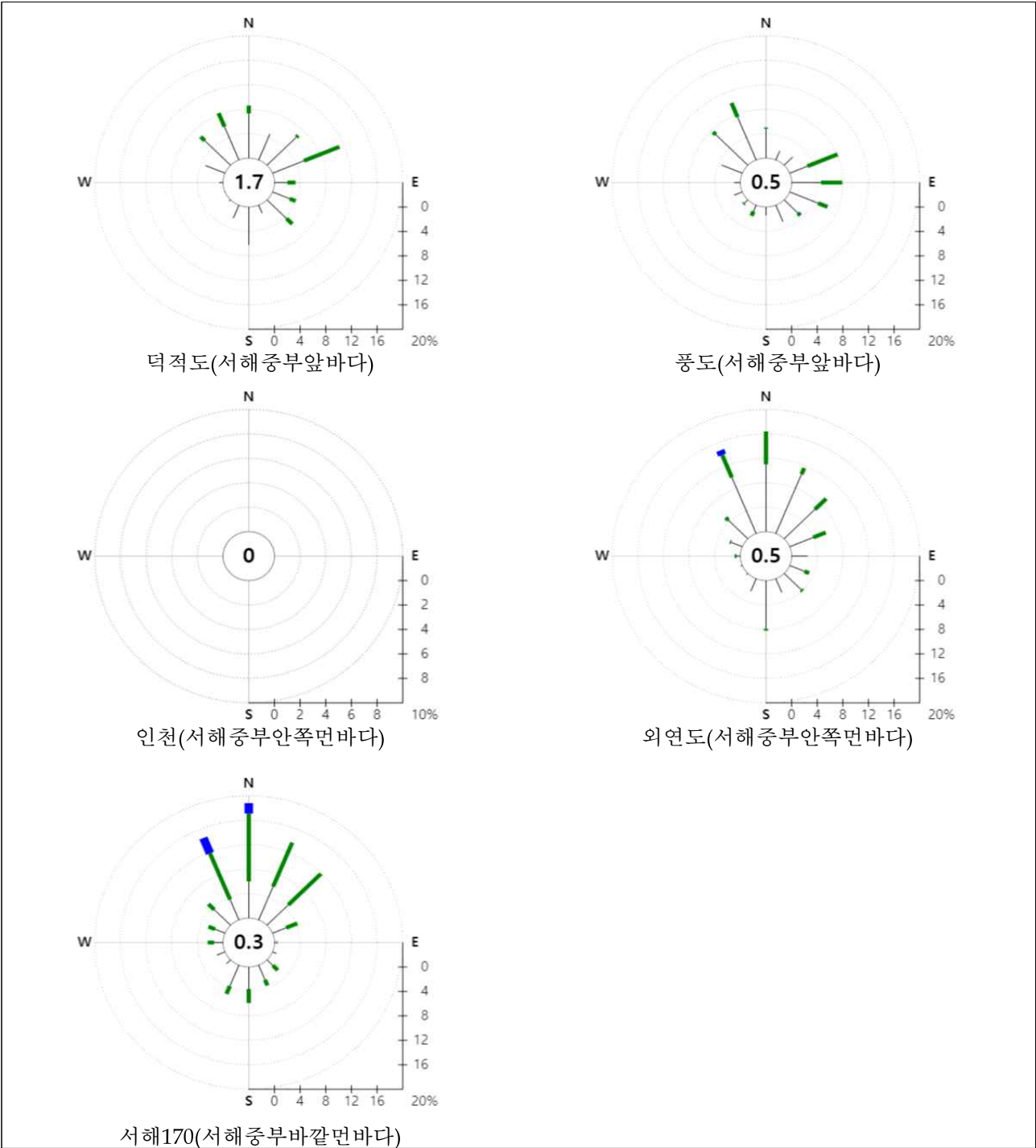
고 등 어	수온하강에 따라 어군의 계절적인 남하회유가 활발하겠다. 제주도 주변해역과 동해남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평년비 수준 또는 평년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갯 이	제주도 주변해역과 남해 근해에서 주어장이 형성되겠고, 동중국해로 남하회유가 활발하겠다. 전체적으로는 평년비 수준으로 전망된다.
살오징어	가을/겨울 산란군의 남하회유(→동중국해)가 대부분 종료되어, 연근해에서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시기이다.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해역에서 일부 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최근 자원밀도 감소의 영향으로 평년대비 부진한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멸 치	권현망어업이 남해도를 중심으로 조업을 이어나가겠다. 24년 11월 이후 전·평년대비 급격한 어획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 어황은 평년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 치	제주 주변해역~서해남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고, 계절적으로 남하하는 어군이 동중국해로 이동하면서 어획수준은 다소 낮아지겠다. 전체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 조 기	월동을 위한 남하회유 시기로 제주 주변해역에 걸쳐 일부 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주어기(9~12월)를 지나면서 어획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평년 수준 또는 평년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 치	서해 남부~제주 주변해역에 중심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망치고등어	망치고등어는 2월 들어 평년수준 수준 또는 평년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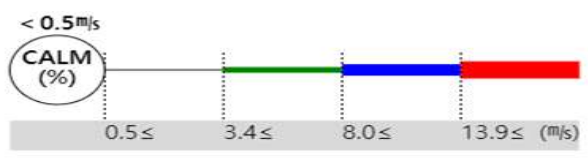
< 2025년 2월 어업별 예상어장도 >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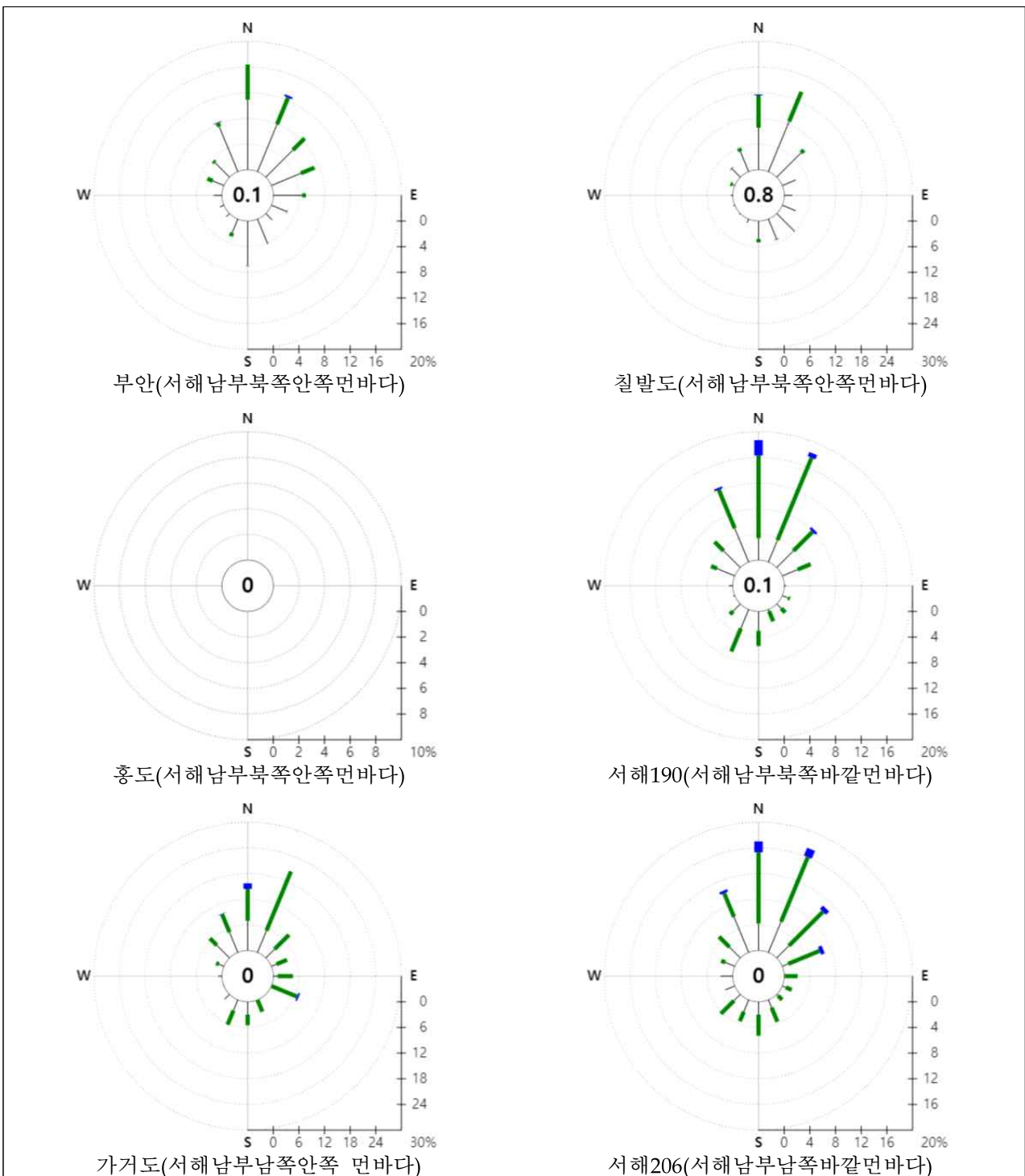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중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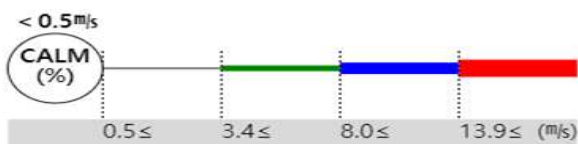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4년 2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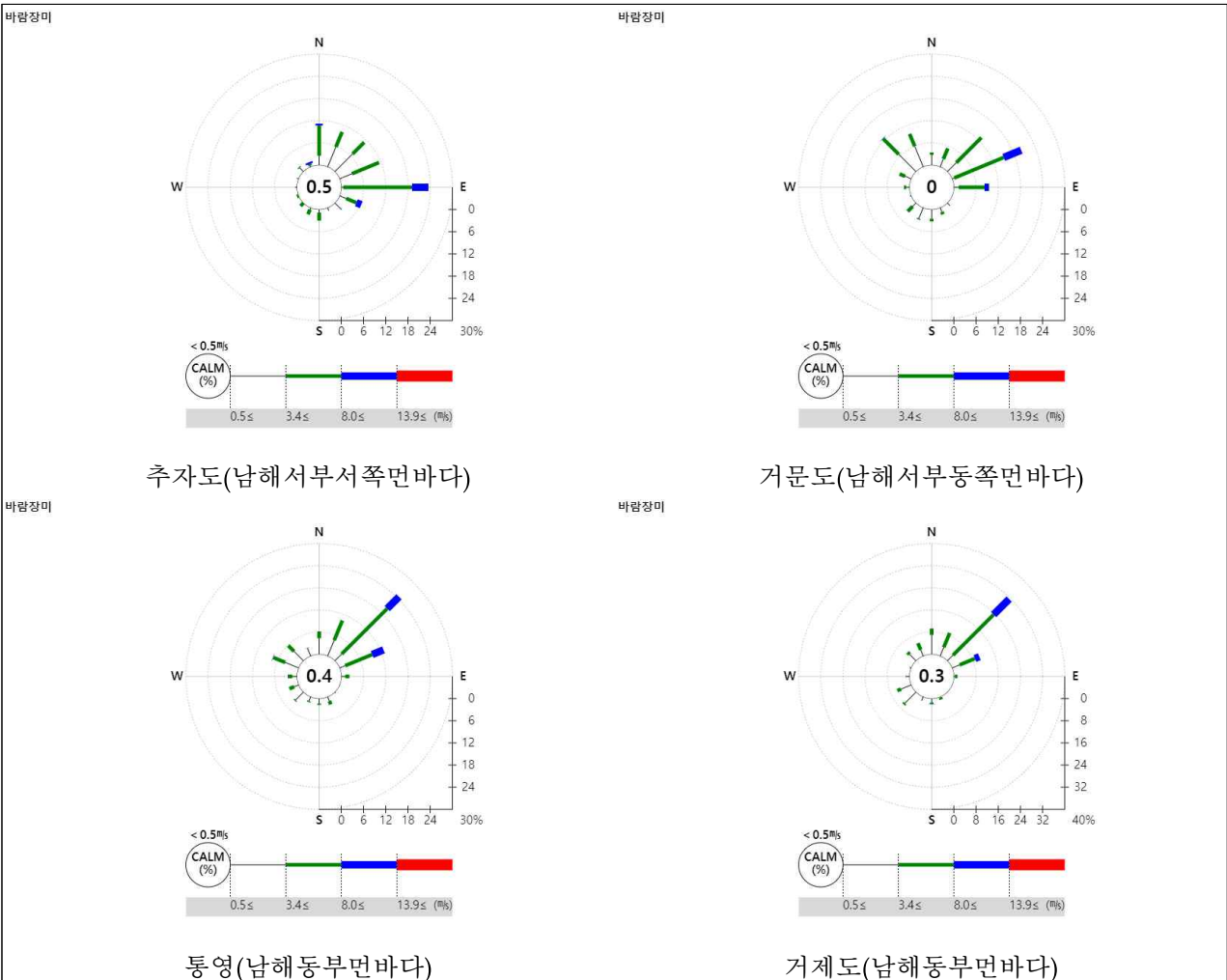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남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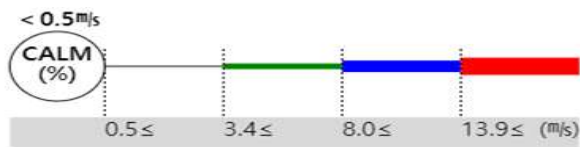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4년 2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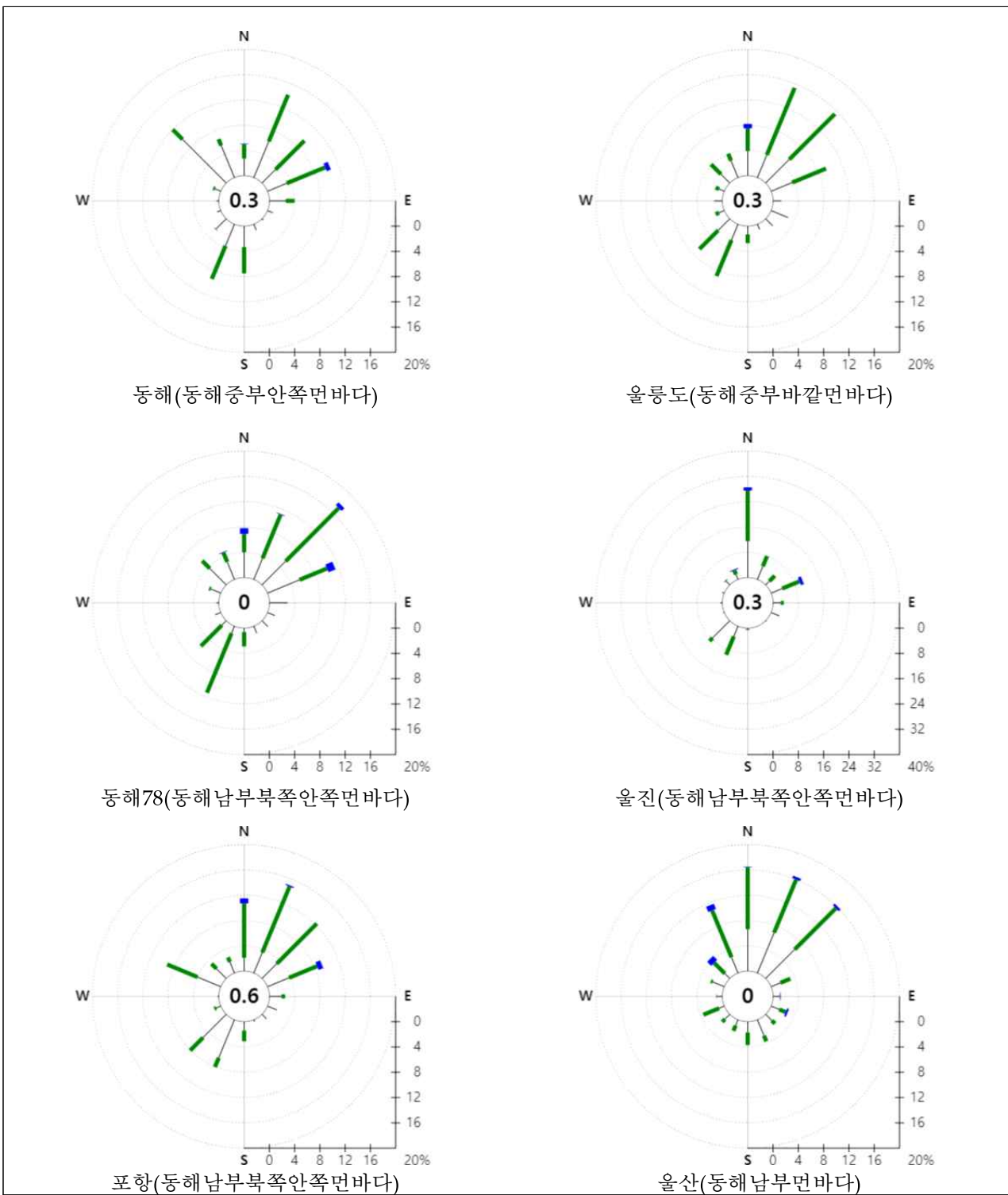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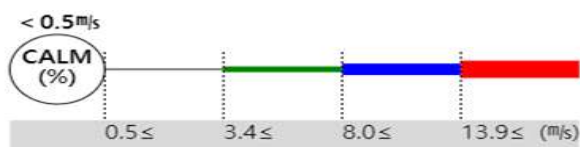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4년 2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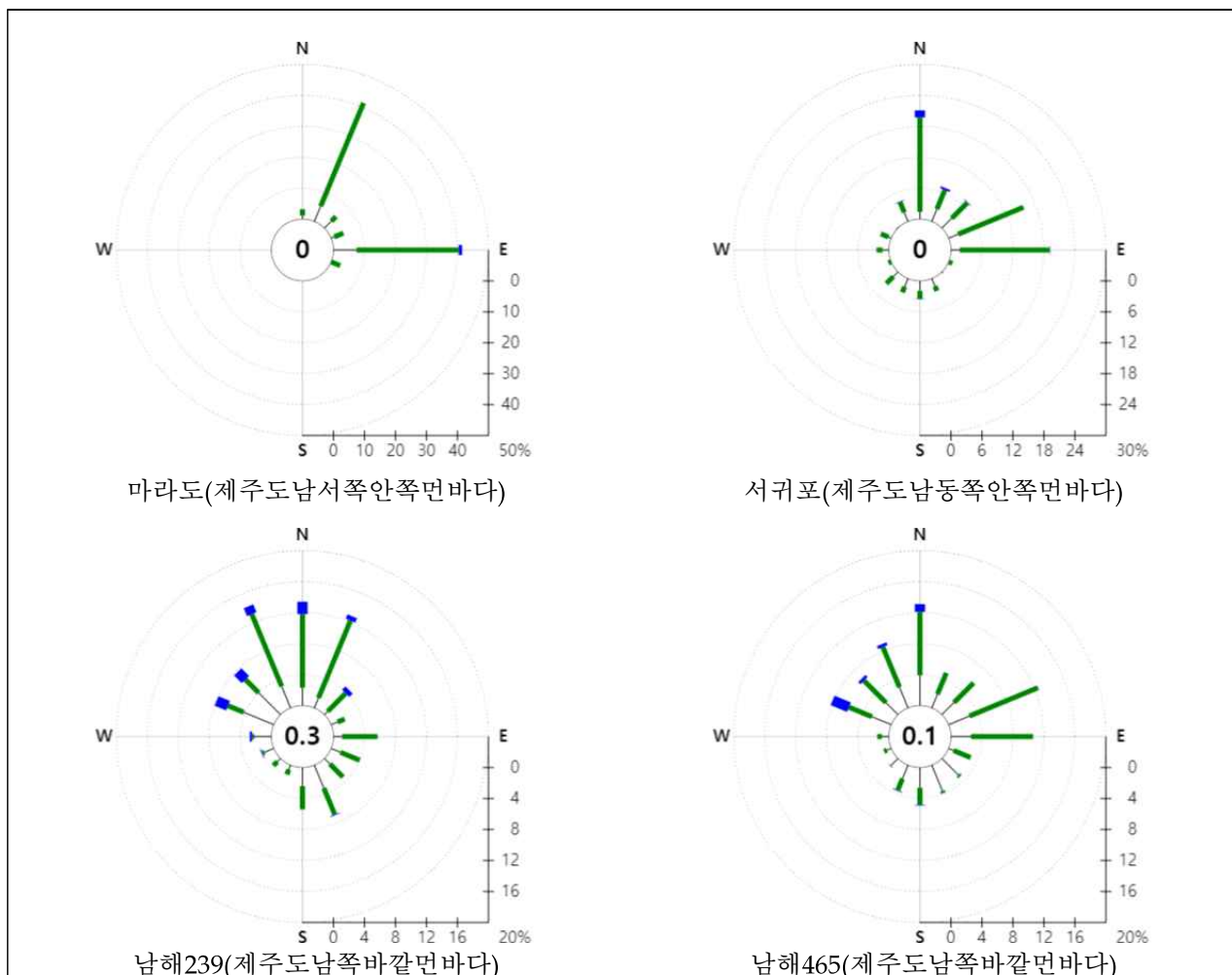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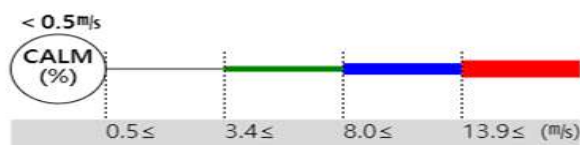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4년 2월, 바람장미) >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제주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4년 2월, 바람장미) >





【부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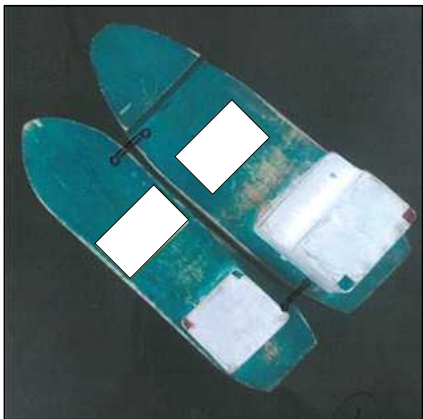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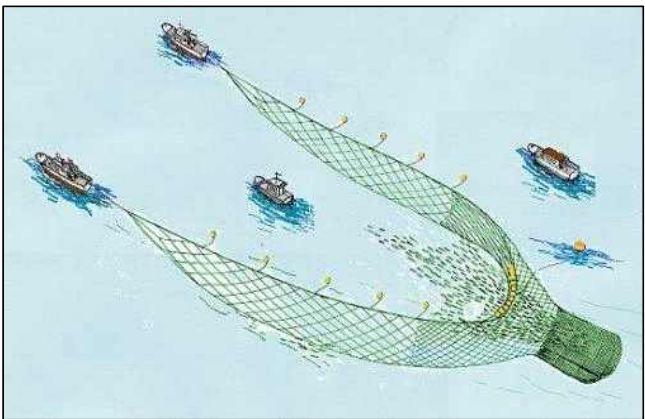
주요 해양 안전사고 사례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1. 어선 A호 전복사건

사건 개요	선박	A호: 어선, 29톤, 길이 21.59미터, 디젤기관 446kw 1기
	일시 장소	2019. 2. 13. 05:35경 제주도 마라도등대로부터 176도 방향, 199마일 떨어진 해상
	피해	선장 K가 사망하고, A호는 전복된 상태로 표류하다가 침몰
	날씨	맑은 날씨(시정 약 2해리), 북동풍 초속 12~16미터, 파고 약 3~4미터
원인	<p>이 전복사건은 A호가 투승작업을 하며 항해하던 중 동조 횡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주기인 약 5초, 파고 약 4m인 추종 사파를 조우하여 약 16.2m³의 해수가 난간을 넘어 갑판으로 유입된 후 선체가 복원정 소실각도(28도)에 가깝게 기울어 직립상태로 복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며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 소유자가 하부 방수구 및 기관실 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p>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소유자는 방수구의 막힘을 확인하여야 하고, 정비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갑판의 폭이 확장된 선박의 선장은 선형이 가지는 복원성 한계에 유의하고, 좌우 경사가 없는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 ○ 선장은 유의파고 2배 높이의 최대파고를 조우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거친 해상 상태에서는 갑판상 개구부를 반드시 폐쇄하여야 한다. 	
관련 사진		
	[B호 전경]	[기관실 출입구]

2. 어선 B호 침몰사건

사건 개요	선박	B호: 어선, 27톤, 길이 21.38미터, 디젤기관 255kw 1기
	일시	2021. 2. 19. 20:34경
	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에서 115도 방향, 2.4해리 해상
	피해	선체가 침몰하고 연료유 일부 해상유출
	날씨	맑은 날씨, 시정 양호, 남서풍 초속 4~6미터, 파고 약 0.5미터
원인	<p>이 사건은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선권현망* 선단의 주선과 종선이 접현·결합한 상태로 무리하게 항해하면서 양선을 연결한 계류줄이 풀리면서 주선이 파도에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p> <p>* 기선권현망 : 바다에서 어선 두척이 어구를 같이 끌어당기는 쌍끌이 표층끌그물의 일종 (아래 조업모식도 참조, 우리나라 멸치 어획량의 약 60%)</p>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선박이 접현·결합 상태로 운항하는 경우, 두 선박을 연결한 계류줄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줄이 풀리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 두 선박을 연결하는 계류줄은 결속력 증대와 계선주에서 벗겨짐을 막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계선주에 감아야 하고, 팔자(8) 모양으로 줄 방향이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 선수와 선미 두 곳에 계류줄을 묶는 경우,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해 계류줄을 고정하는 두 곳의 줄은 그 굵기가 같아야 한다. 	
관련 사진	 <p>[주선과 종선 결합모양]</p>	 <p>[기선권현망 조업모식도]</p>